

산업표준의 변천과 향후 발전 방향

우리나라 국가표준의 체계적 정립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을 제정·공포하고, 1962년 공업표준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용화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제정작업 활동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초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대명제하에 공업입국의 진입을 위하여 선진공업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차원에서 공업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즉 선진산업국은 공업화와 더불어 표준화를 추구한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표준화를 추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생산기술개발의 단계적 목표로서 원자재의 수급관계, 사용자재의 개발, 낙후된 생산공정개발, 기술수준의 균형적 발전,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불규칙적인 모순을 극소화,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표준규격 제정이 추진되었다.

60년대 중반이후 부터는 상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규격의 제정·보급이 목표였으며 70년대 들어서는 국내의 모든 산업이 활성화의 기치를 올려 기간산업 확충과 병행,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전환을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가표준화 사업도 양적 확보의 필요성과 고품질의 부품 및 중화학 공업제품에 대한 규격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71년부터 80년까지 공업표준화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재류와 기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부품을 비롯 화학제품 등 중화학공업 제품에 대한 규격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방법의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이들 공업규격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및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실현하는 데 근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자율적으로 산업표준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규격·단체규격·국가규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표준화를 우리 산업계에 정착시켜 산업발전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보루 역할을 측면 지원한 분야가 바로 산업표준화 보급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때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접근하는 무역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반면 선진 각국의 무역규제 등 수많은 수출장벽이 우리 앞을 막기 시작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IEC 등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국제표준화사업 활동에 역점을 두고 국제규격 부합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산업표준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현열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무관 공업화학기술사

새천년을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가 국제경쟁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면 후진 국가로 전략 선진국들의 지탄의 대상이 됨은 자명하다.

이에 세계산업 질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국제표준이다. 특히 WTO/TBT 협정 등을 배경으로 국제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부합화가 강요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산업표준도 국제규격(ISO/IEC)과의 부합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등 선진 각국들도 자국의 국가표준을 ISO규격에 따른 개정 작업을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별 자국 실정에 맞게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 제품, 환경, 계량, 문화 등 제분야에 대하여 국제 표준화 규격에 맞추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무조건 ISO/IEC 기준에 따라야만 하겠는가?

현재 ISO 규격은 EU 등 유럽국가들이 기선을 잡고 각 회원국의 의사를 투표로서 결정 국제 규격화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산업 실정에 맞는 기준을 연구검토하여 국제규격화하는 일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ISO 규격 부합화 확대방안으로 자체연구기관을 동원 현행 ISO규격의 적합성 검토와 신기술에 대한 국제 규격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산업 현실을 둘러볼 때 전자, 통신, 신소재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의 생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나 그 축적된 기술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민간연구기관 등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부터 우리가 적극 실현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연구기관, 학계, 업체 등 유능한 두뇌집단이 많다. 그러나 국가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가 표준에 따르는 정도이지 규격자체에 대한 내용 검토나 좀 더 발전적 연구로 우리 산업 현실에 적합하고 나아가 세계 선진국들도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앞장서서 공업입국의 기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현행 ISO/IEC 규격은 물론 새로운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우리의 표준화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총 매진하여야 할 것을 다짐한다. (FILK)